

(붙임)

특별전 소개 및 대표유물 사진

□ 특별전 소개

- 전시제목 : 헝가리 왕실의 보물 : 합스부르크 왕가와 헝가리 귀족 사회
- 전시목적
 - 17~19세기 헝가리 왕실과 귀족 관련 유물 전시 및 헝가리 소재 세계문화유산 소개를 통해 유럽 왕실의 화려한 문화와 헝가리의 역사·문화를 국내외 관람객들이 향유할 수 있는 기회 마련
 - 동·중부 유럽의 주요 국가인 헝가리와 우리나라 간의 문화 교류 증진
- 전시기간 : 2013. 12. 3.(화) ~ 2014. 3. 9.(일) / 97일간
- 전시장소 : 국립고궁박물관 지하 전시실
- 전시유물 : '황제의 갑옷' 등 190점
- 전시구성 :

이번 전시는 총 5부로 구성되어 있다. 제 1부는 “합스부르크 왕가와 헝가리 귀족사회”로 400여 년 간 헝가리를 통치한 합스부르크 왕가와 헝가리 귀족사회의 관계를 엿볼 수 있는 헝가리 왕권의 상징, ‘신성한 왕관’, 헝가리 귀족의 지지를 받았던 합스부르크 가의 인물들인 마리아 테레시아, 엘리자베트 왕비의 초상화 등과 같은 유화, 일러스트가 전시된다.

제 2부는 “헝가리 왕실과 귀족의 복식”으로 헝가리 전통 민속 의상을 변형 시킨 헝가리 왕실과 귀족의 남·녀 연회복과 이를 장식했던 화려한 금은보석 세공 장신구 등이 전시된다.

제 3부는 “헝가리 왕실과 귀족의 화려한 일상”을 보여주는 코너로, 헝가리 귀족들이 즐겼던 호화로운 생활을 보여주는 금은 세공 식기, 세련된 정찬용 식기 세트, 그리고 귀족들의 초상화가 전시된다.

제 4부는 “헝가리 왕실과 귀족의 무기”로 전란이 잦았던 헝가리에서 왕실과 귀족의 용맹함과 부를 과시하기 위하여 화려하게 장식된 각종 칼과 총기류 등 다양한 무기를 전시하였다.

마지막으로 제 5부는 “헝가리 왕실과 귀족의 종교”로 헝가리의 주요 종교였던 가톨릭과 관계된 주교 제의복, 성유물함, 각종 보석으로 장식된 성경책 함 등 엄숙함을 자아내는 유물들이 전시되었다.

이번 전시는 그동안 우리에게 잘 알려지지 않았던 헝가리의 역사와 함께 합스부르크 왕가와 헝가리 귀족들의 화려한 문화를 이해할 수 있는 계기가 될 뿐만 아니라 2014년 대한민국-헝가리 수교 25주년을 앞두고 양국 문화 교류 증진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다.

□ 특별전 주요 유물 사진

Section 1

o 합스부르크 왕가와 헝가리 귀족 사회

The Habsburg Monarchy and Hungarian Aristocratic Society

1-1. 왕실의 상징

The Hungarian Holy Crown and the Coronation Insignia

에두아르트 구르크(Eduard Gurk, 1801~1841년), 1830년, 다색 석판화, 37.7×49.7cm

오스트리아의 궁정화가인 에두아르트 구르크(Eduard Gurk, 1801~1841년)의 석판화로 대관식에 사용되는 왕실 의장인 왕관, 홀, 보주, 검 등이 그려져 있다.



1-2. 말을 탄 마리아 테레지아 초상

Maria Theresia on the Coronation Hill

마르틴 판 마이텐스(Martin van Meytens, 1695~1770년), 18세기 중엽, 캔버스에 유화, 45.0×33.0cm

마리아 테레지아(Maria Theresia, 1717~1780년, 재위 1740~1780년)의 대관식 장면을 그린 것이다. 군주는 말을 타고 국가를 상징하는 언덕을 넘은 후 서약을 하고, 칼로 언덕을 사방으로 가르는 의식을 치르는데 이는 어떠한 외세의 침입에도 조국과 신민을 지킬 것을 상징한다. 마리아 테레지아는 언덕을 넘고 칼을 휘두르는 동안 말 위에 앉아있기 위해 임신한 몸임에도 불구하고 대관식이 있기 몇 주 전부터 승마 연습을 했다.



1-3. 프란츠 요제프 1세 초상

King Franz Joseph I

라슬로 쾰뢰프 엘레크(László Fülöp Elek, 1869~1937년), 1899년, 캔버스에 유화, 146.0×95.0cm

프란츠 요제프 1세(Franz Joseph I(1830~1916년, 재위 오스트리아 1848~1867년, 오스트리아-헝가리 1867~1916년)가 69세 되던 해인 1899년에 그린 초상화이다.

프란츠 요제프 1세는 1854년 바이에른 공녀 엘리자베트(Elisabeth von Wittelsbach, 1837~1898년)와 결혼하였다. 1847~1848년의 헝가리 독립전쟁과 1866년 발발한 프로이센-오스트리아 전쟁의 영향으로 오스트리아는 헝가리에 대한 전제정치를 계속할 수 없었다. 이에 프란츠 요제프 1세는 언드라시 줄러(Andrássy Gyula, 1823~1890년)를 초대 헝가리 수상으로 지명한 뒤 1867년 이중 국가인 오스트리아-헝가리 제국의 성립을 선포했다.

프란츠 요제프 1세는 1889년 외아들인 황태자 루돌프의 자살로 큰 충격을 받았으며 1898년 9월 10일 아내 엘리자베트마저 제네바에서 암살당하는 고통을 겪었다. 이후 조카 프란츠 페르디난트 대공을 상속자로 책봉하였으나 그도 1914년 사라예보 사건으로 자신의 부인과 함께 암살당했다. 요제프 1세는 이 사라예보 사건을 빌미로 직접 세르비아를 침공해 제1차 세계대전을 일으켰지만 전쟁이 걷잡을 수 없이 확산되던 1916년 노환으로 사망하였다.

헝가리 화가인 라슬로 쾰뢰프 엘레크(László Fülöp Elek, 1869~1937년)가 그린 이 초상화는 자연스러운 포즈와 대상의 심리적인 면을 잘 포착한 작품이다. 가볍고 신선한 붓질과 정교한 세부표현이 더해진 그의 스타일은 큰 성공을 거두어 유럽과 미국 상류층의 초상화를 많이 제작했다. 이 작품에서처럼 황제는 대부분 제복 차림으로 지냈다. 훈장은 거의 하고 있지 않으며 그의 팔에 보이는 검은 리본은 사랑했던 아내 엘리자베트의 죽음에 대한 슬픔을 나타낸다.



1-4. 엘리자베트 왕비 초상

Portrait of Queen Elisabeth

코페이 요제프 아르파드(Koppay József Árpád, 1859~1927년), 19세기 말, 캔버스에 유화, 211.0×106.0cm

헝가리 화가 코페이 요제프 아르파드(Koppay József Árpád, 1859~1927년)가 그린 이 초상화는 엘리자베트 왕비의 사후, 남편인 프란츠 요제프 1세가 제작을 의뢰한 것으로 엘리자베트의 시중을 들었던 마리아 페스테틱스(Maria Festetics) 백작부인을 위한 선물로 마련한 것이다. 왕위 후계자였던 아들 루돌프 황태자가 죽고 난 후 왕비는 항상 검은색 옷을 입고 있었다. 이 그림에서도 왕비는 애도를 뜻하는 검은색 옷을 입고 있다.



Section 2

o 헝가리 왕실과 귀족의 복식

The Clothing of the Hungarian Royal Family and Nobility

2-1. 헝가리 여성의 연회복

Hungarian Woman's Gala Dress

1867년

머일라트 죄르지(Majláth Gyögy, 1786~1861년) 백작의 부인인 슈테파니아 프란다우(Stefania Prandau)가 1867년 프란츠 요제프 1세(Franz Joseph I, 1830~1916년, 재위 오스트리아 1848~1867년, 오스트리아-헝가리 1867~1916년)의 대관식에서 입은 연회복이다. 코르셋 스타일의 블라우스, 치마, 베일, 앞치마로 구성되어 있다. 1867년 대관식 이후, 백작부인의 후손이 1896년 헝가리 민족 정착 천년 맞이 기념행사에서 이 드레스를 입었다. 헝가리 귀족들은 전통적인 헝가리의 의상을 입거나 전통의상의 모티브를 이용해서 옷을 제작·주문하는 것을 즐겼다. 정장을 입을 때에는 장신구로 펜던트를 부착하기도 했다.



2-2 허리띠

18세기 전반, 은에 도금, 법랑, 78.0×6.3cm

칼러이(Kálay) 가문에서 소장하던 허리띠이다. 1916년 12월 카를 1세(Karl I, 재위 1916~ 1918년)와 치타(Zita Bourbon Pámai)의 대관식에서 치타의 시중을 들었던 칼러이 에르체베트(Kálay Erzcéet)가 이 벨트를 외투의 잠금 고리와 작은 왕관으로 변형시켜 착용했다.



2-3 펜던트

Pendant

19세기 후반, 은에 도금, 법랑, 다이아몬드, 석류석, 8.4×5.3cm

펜던트에는 용과 싸우는 성 게오르기우스(Saint Georgius)가 묘사되었으며 법랑으로 장식되어있다. 성자 등 인물의 형상을 묘사한 장신구는 19세기 중반에 매우 인기 있었는데, 헝가리 정장에도 이런 장신구들로 장식하였다.



Section 3

o 헝가리 왕실과 귀족의 생활

The Lives of the Hungarian Royal Family and Nobility

3-1. 베갯잇

Pillow Border

17세기 중엽, 리넨, 실크실, 31.0×70.0cm

카네이션과 장미 문양을 중앙에, 그 사이에 잎사귀와 작은 튤립 등을 채우고 아래위로 작은 장미, 튤립, 석류, 카네이션 등을 수놓아 장식한 베갯잇이다. 자수의 모티프와 색상, 수를 놓은 방식 등은 모두 터키에서 유래한 것으로 보인다. 17세기 헝가리의 자수는 터키의 영향을 강하게 받았으며, 이를 헝가리의 전통과 결합하여 발전시켰다.



3-2 언드라시 가문의 식탁용 장식 분수

Table Fountain

1748년

세 개의 주전자를 붙여 놓은 모양의 분수로, 식탁에 놓고 와인을 따라 마시는데 사용하였다. 주전자 바닥에의 명문으로 보아 언드라시(Andrásy) 가문에서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



3-3 술병

Flask

안드레아스 쉬슬러(Andreas Schüssler), 1640년경

몸체에 네 장면의 풍경이 정교하게 새겨진 술병이다. 헝가리 왕국에서는 17세기 전반 이후 귀족들이 소유했던 은제 병에 대한 많은 기록을 확인할 수 있는데 17세기 후반에는 트란실바니아에서도 은제 병을 흔히 사용했다. 칼뱅파를 비롯한 교회에서 종교적인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세속적인 용도로 사용했으며 주로 음료를 담는 데 이용했다.



Section 4

o 헝가리 왕실과 귀족의 무기

The Weapons of the Hungarian Royal Family and Nobility

4-1 황제의 갑주와 방패

Emperor's Armor, Helmet and Shield

1630년경, 철에 도금, 흑칠, 투구 : 높이 30.0cm, 흉갑 : 높이 64.0cm, 방패 : 74.0×64.0cm

합스부르크 황제가 사용했던 의식용 갑주와 방패세트이다. 투구는 12개의 철판을 이어 만든 것으로 뒷면에는 장식 깃털을 꽂기 위한 홈이 있고 목보호대가 리벳으로 연결되었다. 흉갑과 등판에는 넝쿨에 잎과 꽃이 달린 좌우대칭의 문양이 도금되었고, 그 아래에는 8개의 금속판을 접을 수 있게 연결한 넓적다리 가리개가 달려있다.

방패는 끝이 뾰족한 타원형의 모양이며 검은색 표면에 아칸투스 잎과 넝쿨에 감싸인 꽃이 도금되었다. 방패 중앙에는 12개의 뾰족한 별모양의 장식과 큰 리본 장식 단추가 있다.



4-2 헝가리 왕의 모습이 장식된 칼

Ornamental Sabre

1860년경, 금, 은, 철에 도금, 길이 101.5cm, 칼날 너비 3.0cm

한 면에는 페르시아어 명문이, 다른 면에는 조지아어 명문이 새겨진 사브르이다. 날뿔의 중앙에는 라코치 죄르지 2세(Rákóczi György II, 1621~1660년)의 초상이, 칼자루에는 이슈트반 1세(István I, 재위 1000~1038년)와 후녀디 마차시(Hunyadi Mátyás, 재위 1464~1490년)의 모습이, 칼집에는 보츠키 이슈트반(Bocskai István, 재위 1605~1606년), 훈족의 왕 아틸라(Attila)(5세기 전반), 전설적인 기사였던 러요시 1세(Lajos I, 재위 1342~1382년)와 같은 헝가리의 위대한 역사적 인물의 초상들이 가득 새겨졌다. 원래 페르시아제 사브르였으나 1860년경에 헝가리에서 화려한 낭만주의 양식의 은판으로 다시 장식되었다.



4-3 사냥용 총

Richly Decorated Hunting Rifle

1670년, 은, 철, 나무, 뼈, 자개, 길이 109.0cm, 구경 1.2cm

8각형의 총신에 앞 가늌쇠가 부착된 총이다. “IK, PP”라고 쓰여진 장인의 압인과 1670년이라는 제작연도가 새겨져 있다. 점화장치 부분에는 총을 든 2명의 남자와 성의 모습, 나무 자루에는 동물의 뼈와 자개, 은실 등으로 사냥 장면이 표현되었다. 특히 방아쇠울에 남편의 엉덩이를 때리는 여자의 모습이 흥미롭다.



Section 5

o 헝가리 왕실과 귀족의 종교

The Religion of the Hungarian Royal Family and Nobility

5-1 성골함

Reliquary Bust of Saint Emeric

1760년대, 흉상 : 은, 받침대 : 황동에 도금, 높이 43.0cm

성 에메리코(Saint Emeric, 1007~1031년)의 성골함으로 흉상은 은제이며 받침대는 황동에 도금하였다. 헝가리의 여왕이자 신성로마제국의 황후였던 마리아 테레지아(Maria Theresia, 1717~1780년, 재위 헝가리 1740~1780년, 보헤미아 1740~1741년)는 일련의 은제 성골함 제작을 명령했다. 이 가운데는 합스부르크 왕가의 정통성을 내세우기 위해 헝가리와 체코의 역대 성인과 왕들도 포함되어 성 이슈트반 1세(István I, 재위 1000~1038년)와 성 에메리코 등의 성골함이 제작되었다.



5-2. 성경책 보관함

Book Cover

17세기 말 , 은에 도금, 자수정, 터키석, 석류석, 법랑 | 9.3×7.6×5.6cm

소형 성경책의 보관함이다. 은제 함에 도금하였고, 터키석·석류석·자수정·법랑을 상감하여 정교하고 화려하게 장식하였다.

